의예과, 전남대 799점·조선대 398점

〈800점 만점 기준〉 〈400점 만점 기준〉

광주진학부장협, 전남대·조선대 수시 지원 배치표 공개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결과 중심 지원여부 고려해야”

9일부터 시작되는 ‘201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에서 전남대 의예과에 지원하려면 내신 800점 만점 기준으로 799.1점 이상을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선대 의예과의 경우 내신 400점 만점 기준으로 398.3점 이상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각종 정보를 취합해 입시 전략을 짜야 하는 고 3 부모들도 힘겨워지기 시작했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회장 송형래·국제고 진학부장)와 광주시교육청 진학지원단은 ‘2016학년도 대학별 수시 모집 전형 일정’과 관련, 내신 성적 및 전년도 대학별 지원·합격 결과 등을 반영해 전남대와 조선대의 수시 지원 배치 참고표를 6일 공개했다.

전남대의 경우 내신 800점 만점 기준으로 이과 수험생은 의예과 799.1점, 수의예과 790.3점, 간호학과 788.2점, 수학교육과 790.3점, 생물교육과 784.6점, 수학과 775.6점, 조경학과 771.8점 등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문과 수험생은 경영학부 779.2점, 경제학부 774.3점, 영어교육과 793.3점, 국어교육과 792.2점, 영어영문학과 780.0점, 국어국문학과 775.6점 등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조선대는 400점 만점 기준(비교과 제외)으로 의예과 398.3점, 영어교육과 386.4점, 수학교육과 384.9점, 간호학과 389.4점, 수학과 368.7점, 경영학부 370.8점, 경제학과 366.8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선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대·조선대 수시 모집의 경우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고 3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과 전년도 해당 대학 수시 합격자 성적을 반영한 배치 참고표를 활용하면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협의회는 예상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성적 100%로 선발하거나 면접 성적을 함께 반영하는 전형으로, 이미 확정된 내신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수시모집 전형 유형 중 상대적으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 쉬운 전형이다.

송형래 광주진학부장협의회장은 “지방사립대의 경우 수시 전형에서 내신성적이 중요하므로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결과를 중심으로 지원 가능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각 학교 3학년 담임교사에게 제공되는 전년도 결과 및 배치표를 확인, 상담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6:09 해짐 18:52 달뜸 00:33 달짐 14:48

청명한 하늘

구름이 많다가 맑아지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음	19/29	보 성	맑음	17/28
목 포	맑음	19/28	순 천	맑음	19/28
여 수	맑음	20/26	영 광	맑음	17/28
나 주	맑음	17/29	진 도	맑음	19/28
완 도	맑음	19/28	전 주	맑음	18/28
구 례	맑음	19/29	군 산	맑음	18/28
강 진	맑음	18/28	남 원	맑음	16/28
해 남	맑음	18/29	흑산도	맑음	20/25
장 성	맑음	16/2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북~북동	0.5~1.5
	먼바다	북동~동	1.0~2.0	북~북동	1.0~2.0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1.5~2.5	북동~동	1.0~2.5
	먼바다(동)	북~북동	2.0~3.0	북동~동	2.0~4.0
	먼바다(서)	북~북동	2.0~3.0	북~북동	2.0~3.0

◇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8:44	02:00
	21:52	14:17
여수	04:10	10:21
	17:23	--:--

◇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운동	10
빨래	20

◇ 주간 날씨

8(화)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6/29	17/29	17/29	19/27	19/27	19/27	18/27

아트상품 사고 거리 전시 보고… 도로위 ‘문화 축제’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첫 표정

연말 까지 매주 토요일

4일 하루 앞당겨 시행

홍보 안돼 시민들 혼선

‘차 없는 거리’ 시행 첫 주말인 지난 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선 사물놀이 등 풍성한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매주 토요일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서 만나요.’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시행 첫날인 지난 4~5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과 금남공원 구간 왕복 5차선(길이 518m·너비 40m) ‘차 없는 거리’<광주일보 9월1일자 1면>에서는 ‘문화난장’이 펼쳐졌다.

도로 한복판에는 시민 셀러 80여팀이 판매대를 가져와 액세서리, 아트상품 등을 판매했다. 광주시는 라틴댄스, 퍼포먼스, 바디페인팅, 플래시몹 등 볼거리와 함께 한지 공예, 민화 그리기, 석고 손도장 만들기 등 체험 행사를 함께 준비했다.

광주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개관에 맞춰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아시아 문화의 거리 금남로! 문화의 꽃이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

특히 지난 4일은 금요일이었지만 전당 개관에 맞춰 차 없는 거리를 운영을 하루 앞당겨 시행했다. 금남로를 찾은 시민들은 전당 관람 이후 ‘금남로 거리 문화 축제’를 즐기기도 했다.

‘금남로 거리 문화 축제’는 전당 어린이 문화원을 방문한 가족 단위 관람객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외국인들은 난생처음 떡메치기, 한지 공예 등을 체험하거나 아시아 전통 의상을 입어봤고, 가족 단위 관람객들도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거리에서는 전시회도 열려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양호, 정다운, 박성완 등 작가 5명은 금남로 거리를 작업실 삼아 작품을 그렸고, 또 작품들을 5만~10만원 사이에 판매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첫날 행사가 사전 홍보 없이 진행돼 시민과 상인들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지난 5일 친구들과 함께 금남로를 찾은 류지혜(여·31)씨는 “도심을 친구들과 걸으면서 도로 곳곳에서 펼쳐지는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금남로가 문화가 숨 쉬는 거리로 변모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만들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금남로 거리 문화축제’를 꾸밀 예정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광주·전남 학교 CCTV 70% 저화질

학교안전지킴이 1인당 관리학생 광주 500명·전남 350명

새정치 윤관석 의원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10대 중 7대는 사람 얼굴이나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저화질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안전지킴이 1인당 관리 학생 수가 광주는 500명, 전남은 350명에 달해 학교안전 환경이 여전히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에 설치된 CCTV는 광주 4168대, 전남 8906대에 이른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사람의 얼굴이나 자동차번호판, 야간식별이 가능한 100만 화소 이상 제품은 광주가 1314대, 전남이 3012대로 각각 31.5%와 33.9%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100만 화소 미만으로, 심지어 40만 화소 미만 제품도 광주가 546대(13.1%), 전남이 1042대(11.7%)로 모두 두 자릿수 비율로 나타났다.

재정난 등으로 CCTV 설치 예산도 크게 줄어 광주는 2013년에 10억9400만원이던 게 지난해와 올해는 2억6000만원으로 줄었고, 전남은 2011년 20억, 2012년 48억원이던 것이 올해는 6억5000만원으로 급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사학 비리’ 이홍하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6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부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지난 3일 법원에 요청했다. 이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지난달 24일 오후 5시부터 이달 7일 오후 4시30분까지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만료일인 7일 전남대병원에서 심문절차를 진행, 이씨의 상태 등을 파악한 뒤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